

스위스 그랜드호텔을 보며...

Coment on Swiss Grand Hotel

許範八 / 국민대 부교수

by Heo, Beom - Pal



사진 1

· 序

Hotel, 그 단어는 우리의 생활 (짧은 호텔의 역사중)에서 매우 생소하며 거북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농업을 주로하는 민족에 있어서 여행이란 매우 특수한 경험이며 그 수용시설도 매우 단조로웠다. 그러나 이러한 호텔도 그 역사가 짧지만 웨스틴조선호텔을 시발로 셰라톤위커킬, 프라자, 신라, 롯데, 하이얏트, 힐튼, 르네상스로 이어지면서 호텔의 양적확보나 부대시설의 고급적 분위기에서 납득되는 상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중상층이상이 사회에 확대되고 더불어 주5일 근무와 그로인한 각종 레저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호텔도 그 기능층축이 매우 급속도로 변화하며 호텔이 지니는 고유한 운영형태 및 부대시설의 운영실태에 따라 취향의 선택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도 외국디자이너와 외국의 운영방식에 얽매는 것은 사실이나 올림픽이후 새로워지는 현실에 적응하거나 미래의 생활환경에 익숙해지면 많은 우리의 노하우를 호텔에 부여하리라 본다. 최근 중량급 호텔이 오픈하는 상황속에서 숙박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서비스 시설의 구성수법이 매우 다양함을 느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스위스그랜드호텔의 성격을 비즈니스 시티호텔로 규정하고 기능적 업무성격을 이해한 후 그 자체가 지니는 건축적 측면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 환경과 디자인 전개

기존환경자체가 시각적효과와 물리적조건으로 디자인을 어느 방향으로 종용시키고 시행주체의 다양한 요구는 수시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축가는 특정한 지점에 자신의 지식과 체험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의 점과 그 한점의 해석으로 하나의 선을 그리게 될때 종종 복병을 만나게 된다. 기존의 많은 호텔이 그래왔듯이 다양한 호텔의 기능과 운영축의 욕구 변화는 건축가의 상황판단을 종종 혼란시키고 곤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그러나 건축물은

완성되는 순간 작가를 떠나버린다. 그 진행의 과정이 어떠했던 한 개인이 창조한 결과는 작가의 것만이 아닌 것으로 객관화되고 그후 건축가에게 책임과 함께 비판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의 지정한 분석은 그 진행과정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와 더불어 결정된 상황의 판단이 올바른 것이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몇개의 시행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완공되었다. 경사가 심한 자연계곡과 대지북측에는 채석장의 소음과 혼잡함, 그리고 남측에는 인접주거지역의 프라이버시, 더불어 전면의 주거지역 등 대지밖으로 향한 조망의 악조건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L"자형의 건물배치는 콘다와 대지조건에 대한 해석상의 아이디어로 이해되며 외관형태에서의 개구부처리는 시각적교정의 기능적요구에 강하게 접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그 대지의 특성에 의하여 가로 콘택스트보다 자연산록속에 삽입되는 독립적 형태의 이미지 구축은 단순하지만 과감한 형태의 추구로 유도되었을 것이고 가로를 따라 진행되는 상태에서 도면의 ㉠ 지점에서는 정면으로 ㉡ 지점에서는 측면을 따라 진행되는 시각전달의 요구해석이라 이해되어진다.

건물의 형태해석은 단순하지만 과감한 이미지전달로 Lump 적 구성수법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덩어리에 절제된 창호, 그리고 그에 따른 음영적 효과의 벽면처리는 매우 흡족한 접근의 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빗겨진 창은 음영을 제공하는 측면은 있으나 그 분할이 너무 미시적으로 되어 혼잡스럽게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진2 처럼 ㉠과 ㉡를 연결하는 2층 부대공간의 개구부형성과 그 연결수법이 문제시되며 ㉢부분의 태두리적 벽면이 미약하게 느껴진 안정감과 집중력이 약화되어 단순하지만 과감하고자 했던 초기의 작품의도가 많이 희석되었다. 즉 가로환경적 측면에서는 정면의 면적구성이 화강암의 강인함과 단순함의 이미지는 은유 인듯 하나 근접시각의가 측면에서는 다양한 창호의 얇은 음영이 Solid 와

◆ 許範九
49년 서울생. 홍익대와 同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현재 국민대 부교수.



사진 3



사진 4

Void의 적절한 비례보다 매스의 분절로만 이해되어 건물자체의 디자인 언어는 어느 호텔의 양식보다 단연 우수하고 압도적이나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확산되는 분위기로 지각되어 전면의 조형효과가 순수한 애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주변불량환경에 대한 시각적 교정의 효과와 단일효과의 기대에 의한 절제된 창조등의 합리적 형태해석 등은 작가의 엄청난 노작임은 인정하지만)

또한 전체조경은 진입로의 경사에 의하여 시각적 접근 효과는 지니고 있으나 측면진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서비스동의 입면처리가 그 스케일에 비하여 세밀성의 디테일이나 공간적 구성효과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게 지각된다. 이는 진입시 양피적 덩어리에 의한 일차적 감흥효과와 부족함이 실내투영의 효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자칫 권위적 표현과 단조로움을 시사할 수 있음이다.

· 기능적 성격과 공간이용

여타의 건축설계도 복잡하며 다양한 해석을 요하지만 호텔은 더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들 및 경영주체인 호텔운영자의 요구와 기능충족이 복합적이므로 공간계획은 다양하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그 기본적 성격을 시티호텔로 구분하고 그 기능은 상층부는 객실과 저층부는 위락부대시설을 배치하여 그 구분은 거대한 아트륨으로 구획되고 있다. 즉 지하층, 1층, 2층의 공용부분은 호텔의 주공간인 아트륨으로 중심배치되었으며, 상부 2개층(4~11층)에는 객실만을 배치하여 에리베이터의 혼잡방지, 객실에서 보다 편한 분위기를 가지도록 하였다. 404개의 객실과 식음료 및 연회등의 부대시설 규모는 국제적 수준의 특급호텔로서의 적정규모는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아트륨은 상대적으로 과장되어 있음을 느끼나 이러한 아트륨으로 前公用空間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하여 로비, 복도 등의 복합공간을 여유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높이평가 할 수 있다. (사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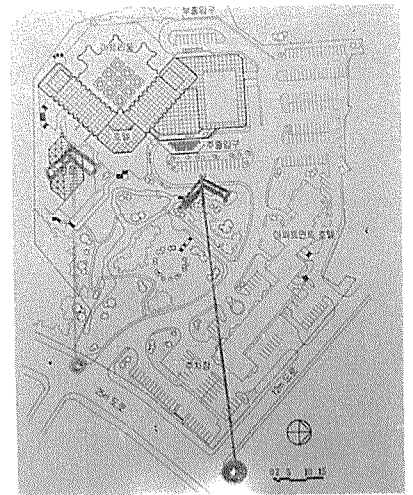
구조시스템으로서 고층부는 Flat Plate Slab 와 4"간격의 기둥으로 층고를 최소화(층고2.8"), 하부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계획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을 꾀하였으며 이에따라 대형 Transfer Girder 가 지나는 3층을 서비스층으로 활용케하여 공기기계실, 전기실등을 배치하여 상부의 객실층과 하부의 공용층 설비를 담당하도록 한점은 공간이용의 활용도를 높인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結

스위스그랜드호텔에 표현된 조형성은 이미 우리의 감각속에 친근해졌고 그 조형성이 형성하는 공간감은 항시 새롭게 우리를 압도한다. 매우 섬세한 비례와 기능적 구성의 충족으로 이루어진 화사드, 전체적대사로 표현된 화합성 등은 이 건축의 어떤 기술적 하자도 상쇄하고 남는 가치이며 진입로 우측에 진행되고 있는 빌라와 더불어 전체단지의 분위기는 주변의 분위기를 일신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여진다.

이제 우리의 호텔건축 및 실내계획도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서 벗어나 진정 진절하며 상냥한 이미지를 활성화하여 옛 낭만이 서린 아름다우며 담백하면서 소박한 우리의 분위기를 지니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올바른 부대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할 때라 느껴진다.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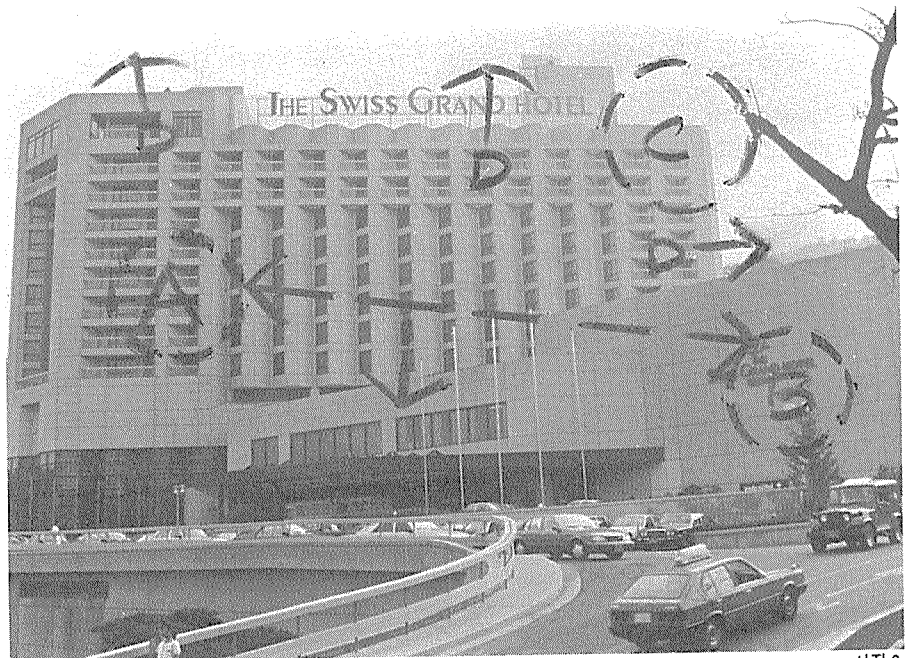


사진 2